

황남열 하이트진로지부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6월 7일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을 기다리지 않고 닷새 먼저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투쟁은 첫날부터 "국민 소주" 공급망에 차질을 주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았다튀 다루는 기업주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는지는 관심도 없이 비난하기 바쁘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장을 인터뷰해 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에 대해 들어 봤다.



세 달 가까이 이어진 태업과 시위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에 예고됐으니까, 어차피 우리도 때가 됐고 해서 6월 2일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투쟁이 좀 격렬해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싸워 왔습니다. 2월 중순부터 태업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집회도 했죠.

[사용자 측은] 운송비 아끼려고 과적을 합니다. 5톤 차량에 10톤 이상을 더 싣게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차량] 뒤쪽이 축축 쳐질 정도니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데, 이번에 투쟁하면서 우리가 그건 용인할 수가 없다고 저지했죠. 그러다 보니 [출고] 물량이 덜 나가고, 그렇게 세 달 가까이 [회사와] 부딪혀 왔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화물연대로 되기 전에는 연합회, 그러니까 상조회 같은 건데, 거기가 3년에 한 번씩 회사와 운송료 협상을 했어요. 10년 전부터. 지난해 말 협상에서 [회사가 운송료] 1퍼센트 [인상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거절하니까 3퍼센트, 최종 5퍼센트를 제시했죠.

우리는 수십 년간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계속 참아 왔어요. [회사가] 다음번에 보자, 또 다음번에 보자 해서 이번엔 기대를 했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행동을 취하기로 한 겁니다.

지독한 차별과 낮은 운임

우리는 사실상 외부 용차 취급을 받아 왔어요. 이 회사 직원이 아니고, 고정 차도 아니고, 외부 용차라고 합니다.

그게 드러나는 효과가 기분이 나쁜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화물차] 기사들은 [공장 내] 식당에서 밥을 안 줘요. 수년 동안 요구해서 복지 차원에서 5년 전부터 [회사가] 식사를 제공했거든요. 새벽부터 밥을 못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큰 차들은 어디 세워 둘 데도 없어서 일하다가 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지독하죠. 대신 밥값을 좀 받아서 기사 대기실에서 아침에

라면을 먹고, 그렇게 2년 반을 해 왔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도 아닌지, 참 기가 막혔죠. 철조망으로 딱 막아 버리더라고요. [이전 공장에] 기사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소변기 2개 있는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따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언짢았습니다.

운임도 동종 업계보다 많이 떨어져요. 여기 운송료라는 게 좀 복잡해요. 소주를 싣고 (편도) 10만 원 짜리를 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공병을 싣고 오거든요. 제품 값과 공병 값을 책정해서 왕복 운송료가 되죠.

공병을 많이 실어야 [수입이] 좀 남는데, 동종 업계는 보통 공병 값을 6~7만 원 줘요. 그런데 우리는 3만 원 정도 줍니다.

게다가 공병을 다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퍼센트는 빈 차로 다니거든요. 그게 우리 탓도 아닌데, 공회전(빈 차)하면 안 주죠. 동종 업계는 공회전할 때 공병 값의 60~70퍼센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30퍼센트 운송료 인상, 공회전비 지급,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요구에 있어요.

화주 하이트진로의 뻔뻔한 책임 회피

사측은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하도급법 때문에 [화주인] 하이트진로가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선다고. 사실은 자기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그런 말을 하네요.

여기 [운송업체인] 수양물류 지분의 100퍼센트를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어요. 하이트진로 계열사죠. 얼마 전에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하이트진로 상무로 있던 사람이예요. 전 사장은 하이트진로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고. 인사부터 다 자기들이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경찰도 지금 너무 심해요. 병력이 우리 숫자에 비해 6~7배가 오니까. 우리를 포위하면서 '너희는 나가 있어라' 압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슨 중죄를 진 것처럼 굴어요.

[대체수송 차량들이] 과적, 불법부착물, 허가증 없는 운반 같은 걸 하니까, [우리는] 그걸 고발하고 위협을 막으려고 하는데, 전경이 방패로 우리를 막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과격해지고.

경찰은 진짜 회사 편인 거 같아요. 회사를 지켜 주기 위해 오는 겁니다.

파업과 연대의 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가 이천 공장과 청주 청원 공장에 있는데, 같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천에 80명, 청원에 60명 좀 넘어요. 150명 정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큰 화물차들은 한 번에 팔레트 32~34개를 싣고, 하루 2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총 300번을 운반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용차를 불러 써도 작아서 한계가 큼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출고될까 말까 해요. 파업의 힘이 큰 거죠.

하이트진로는 월, 화, 수에 24시간 철야로 공장을 돌려요. 제품장에 그게 쌓여 있는데, 출하를 안 해주면 쌓을 데가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라인이 멈추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직매장들은 지금 재고가 바닥 수준이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조그만 대리점, 도매장에서 직접 공장으로 술을 가지러 오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파업한다고, 다른 조합원들도 지나가다가 찾아오고, 손을 흔들어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있어요. 힘이 됩니다. 그런 게 연대 아니겠어요? 지역본부도 이쪽으로 올인하고 있고, 오늘 본조에서도 와서 격려사도 했습니다.

오비맥주 동지들은 다 한 동네에 있어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여기서도 일하고. 너무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그동안 오비맥주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을 하니까 다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요즘 유가 [인상] 때문에 다들 불만이 많아요. 비조합원들도 이번 기회에 좀 운행하지 말고 쉬어 보자, 그런 기조가 강합니다. 화물연대 파업하면 같이 [차를] 세우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오늘 우리가 갑자기 강패 집단처럼 돼 버리고 <한국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같은 데가 기사 올린 거 보면서 짜증이 확 밀려왔는데, 우리 편 언론을 만나니 기분이 좋네요. 많이 알려주고 응원해 주세요.

6월 2일 먼저 파업 돌입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낮은 운임,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한 정당한 투쟁

화물연대가 6월 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그보다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장은 본지에 사용자 측의 온갖 멸시와 낮은 운임 등의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공장 내 식당 이용이 금지되고, 심지어 철망이 세워져 화장실 사용까지 가로막혔다는 말에선 사무치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노동자들이 받는 운송료는 동종업계의 다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을 터트리며 지난 2월 중순 화물연대에 가입해 투쟁에 나섰다. 운송료 인상 등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곳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 명은 6월 2일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했다. 두 공장은 참이슬, 진로 등 하이트진로 소주의 70퍼센트 이상을 생산한다. 노동자들은 대형 트럭을 몰고 생산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제품을 실어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

“소주 대란”

그런 노동자들이 화물차를 멈춰 세우고 농성·시위에 나서자, 파업 첫날부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제품이 출고되지 못하고 공장 안에 쌓였다. 이천 공장은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출고량은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 성수기 “소주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기업주 언론들은 “경제에 찬물 끼얹기”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번 투쟁의 파급력은 오히려 화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이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 생활 소비재를 유통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만큼 막강한 투쟁 잠재력도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면서 “파업과 연대의 힘을 느꼈다”고 하는 말에선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동종업체 오비맥주 화

물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경험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오비맥주 노동자들이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극을 받고 있다.

이천에서 일하는 오비맥주 화물 노동자는 말했다. “이천 하이트진로가 먼저 파업에 들어갔는데, 오비맥주 노동자들이 차를 끌고 가서 클랙슨을 울리며 연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이트진로 파업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새롭게 투쟁에 나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응원하자.

독자 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